

광주 우치동물원 '생태형 동물원'으로 확 바뀐다

市, 내년부터 5년간 150억 투입 시설 개선

쇠창살 대신 투명 유리...우리도 대폭 확장

광주우치동물원이 사람을 위한 동물원에서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난다.

광주시는 기존 쇠창살과 콘크리트 바닥으로 지어진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를 각 동물의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동물친화적인 공간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시설 개선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관람객들은 동물원에서 철창안에 갇힌 동물을 바라보는 불편한 죄의식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치동물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예산 150억 원을 투입, 생태와 동물복지에 결합한 우치동물원 시설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치동물원은 지난 1992년 5월 4일 전신인 사직동물원에서 북구 생용동 우치공원(12만1302㎡·3만6693.9평)으로 부지를 옮겼으나 조성된 지 23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등으로 비좁고 낡은 감옥 형태의 우리 등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시는 각 동물의 서식 환경과 비슷한 형태로 우리를 개선할 계획이다.

우치동물원은 내년 초까지 예산 15억 원을 투입, 1200㎡(363평) 규모의 전시장에 원숭이들이 오르내릴 수 있는 15m 높이의 정글 탐험대를 만들고 고사목을 심는 등 원숭이들의 서식 환경과 유사한 시설을 만들 예정이다.

또 쇠창살을 철거하는 대신 방사장 전면 에 가로 10m·세로 3m 이상의 투명유리를 설치, 관람객들이 1m 앞에서 원숭이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코끼리 우리는 기존보다 몇 배 이상 넓어진다.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코끼리의 습성을 감안, 기존 330.6㎡(100평) 너비의 우리를 대폭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린 우리도 확장할 계획이며 파충류·해양동물사, 박제전시관은 새로 지을 전망이다.

시는 또 우치동물원을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생태·교육동물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시는 생태학습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동물 먹이주기 체험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0명의 동물해설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동물복지 및 안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해 사육사 인원을 총원(3명)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 시민·동물친화적 동물원으로 서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우치동물원이 미래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우치 동물원 20년 이상 장수동물들 '특별대우'

침팬지·독수리·하마 등 다진 고기에 특별영양식 건강검진·체중관리 필수

광주우치동물원엔 우치동물원 전신인 사직동물원 시절부터 동물원을 지켜온 장수 동물들이 있다.

동물원이 모든 동물을 꼼꼼히 잘 보살피고 있지만 나이 많은 장수동물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한 덕분인데, 침팬지·하마·독수리 등이 주인공들이다.

이들 중엔 지난 1992년 5월 4일 우치동물원 개원 이전인 광주 사직동물원 시절부터 광주를 줄곧 지켜온 안방 마님들도 있다. 사실상 광주 동물원 역사의 산증인들이다.

동물원은 이들에게 어떤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을까.

수컷(3마리)·암컷(2마리) 독수리 5마리는 지난 1990년부터 26년을 사직·우치동물원에서 보냈다. 천연기념물(멸종위기등급 2급)인 이들 독수리는 평균 수명인 25년을 넘겨 살다 보니, 젊은 독수리처럼 아무거나 먹지를 못한다.

동물원은 이들 독수리에게 먹이를 줄 때 닭고기를 잘게 다진 뒤 주거나 정기적으로 특별 영양식을 넣어주고 있다.

동물원은 스트레스 예방에도 부쩍 신경 쓰고 있다. 올해 나이 33세인 수컷 침팬지는 수줍음이 많아 그동안 스트레스를 곧잘 받았다. 따라서 침팬지가 설 수 있는 별

도의 공간을 만들어 관람객들의 관람 기회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휴식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또 소화를 돕는 요구르트도 정기적으로 주고 있다.

올해 나이 24세인 하마에겐 체중관리로 특별대우를 한다. 하마는 몸길이 3.7m·어깨높이 약 1.5m·몸무게 3t. 주로 사육장에 마련된 폭 4m·길이 6m 크기의 'L'자형 풀장에서 생활하는데, 일광욕과 풀·고구마 등 먹이를 먹기 위해 육상으로 나온다. 체중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노령동물의 경우 영양상태·질병 유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1~2kg 변화는 문제가 없지만 급격한 체중변화가 일어나면 사육사들은 긴장하게 된다.

동물원 측은 이들 노령 동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식단 외에 계절 과일이나 채소도 먹이고 있다.

우치동물원 관계자는 "이들 동물은 대부분 사망하면 구하기 어려운 멸종위기종들"이라며 "이들에게 쏟는 정성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각별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물놀이 신명난 러시아 학생 제7회 전국 학생 및 동호인국악경연대회가 지난 4일 광주시 남구 광주대교 특설무대에 서 열렸다. 대회에 참석한 러시아 학생이 장구를 치며 공연을 펼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31 해질 18:10
해질 16:39 월출 03:42

아침·저녁 쌀쌀해요

오전에 구름 많겠으나 오후에 대체로 맑겠음.

◇지역별 날씨(℃)

광주	흐린뒤맑음	13/23	보성	흐린뒤맑음	9/23
목포	흐린뒤맑음	13/22	순천	흐린뒤맑음	12/25
여수	흐린뒤맑음	15/22	영광	흐린뒤맑음	10/21
나주	흐린뒤맑음	11/24	진도	맑음	13/22
완도	맑음	14/23	전주	흐린뒤맑음	11/23
구례	흐린뒤맑음	8/24	군산	흐린뒤맑음	11/22
강진	맑음	11/23	남원	흐린뒤맑음	10/22
해남	맑음	11/23	축산도	흐린뒤맑음	16/20
장성	흐린뒤맑음	10/23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북동	북~북동	0.5~1.5
남해	남서	북~북동	북~북동	1.0~2.5
남부	남서	북~북동	북~북동	1.0~2.0
서부	남서	북~북동	북~북동	0.5~1.0
서부	남서	북~북동	북~북동	2.0~4.0
북부	남서	북~북동	북~북동	1.0~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시각	수위	시각	수위
여수	12:15	05:27	17:42	01:05
	23:52	17:42	01:05	13:13

◇주간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	☀	☁	☀	☀	☁	☀
12/24	13/25	14/26	14/27	15/27	14/26	14/25



◇생활지수

식중독	49
운동	60
빨래	90

광주·전남 학교안전사고 매년 급증 불구

안전교육 예산은 전국에서 가장 낮아

광주·전남지역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교육청이 마련한 학교안전교육 예산은 45.8%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1000명당 발생건수는 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새누리·비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3417건으로 집계됐다.

학생 1000명당 13.6명꼴에 해당되는 셈이다.

광주지역 학교 안전사고는 ▲2009년 2150건 ▲2010년 2447건 ▲2011년 2629건 ▲2012년 344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4년 새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증가율이 무려 74.9%로 특별·광역시 중 서울(95.3%) 대구(8.8%) 다음으로 높았다.

전남지역 학교 안전사고도 ▲2009년 1540건 ▲2010년 1500건 ▲2011년 1729건 ▲2012년 1853건 ▲2013년 1940건으로

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학생 1000명당 안전사고 증가율이 45.8%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1000명당 발생건수는 7.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학교안전사고 발생 증가에도 안전교육 예산은 1인당 몇십 원에서 몇천 원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광주지역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 예산은 2013년 36원에서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가 올해 1490원으로 올랐다. 2010년 457원에서 2011년 830원, 2012년 1166원으로 매년 1000원 안팎 수준에 그쳤다.

전남지역은 올해 2663원이지만 지난해 4874원보다는 절반 정도 깎였다.

강 의원은 "각종 학교 안전사고 예방 대책에도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 최대부수 광주일보 062-222-8111

더불어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

광주 대표 상수원 - 동복호

빛여울수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여울 수!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상수원은 무등산과 백아산의 청정한 산간계곡에 위치하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유입되지 않은 좋은 조건을 기본으로 자동으로 정수약품을 주입하고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깨끗합니다.

- 현재, 상수원수는 좋은 조건의 수질상태 유지
- 미국, 일본,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한 수질기준에도 적합한 물
- 국제수준의 수질검사 능력을 갖춘 수질연구소에서 철저한 수질검사를 거쳐 생산

빛여울 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수돗물 절약 실천 사항

- 샤워, 세수, 설거지, 세탁 등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할 때에는 받아서 사용합니다.
- 수도꼭지 등 누수방지를 위해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절약형 샤워꼭지를 부착합니다.
- 하수구에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 샴푸, 린스, 합성세제의 사용을 줄입니다.
- 한번 사용한 물을 다시 사용합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